

보도시점

즉 시

배포

2026. 7. 8.(수) 14시

‘동포가 신뢰하는 청렴 행정’...청렴시민감사관과 지혜 모은다

- 청렴시민감사관 위촉...부패 취약 분야 점검하고 개선 과제 발굴
- 전 세계 동포가 신뢰할 수 있는 ‘청렴 행정’ 실현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16.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

- 재외동포가 더욱 신뢰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재외동포청의 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에 참여한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8일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고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.
 - 이날 위촉식에서는 조은경 (사)이케이 윤리지식연구소 연구소장과 세한대학교 양세영 교수의 임기를 연장하고,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.
 - 전선재 변호사는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재외동포청의 청렴도 제고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.
- 위촉식에 이어 열린 자문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의 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 방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.
 -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,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.
- 김경협 청장은 "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"라며, "청렴시민감사관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 행정을 만들어 가

겠다”고 말했다.

- 재외동포청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하반기 반부패·청렴 시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, 청렴시민감사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부패취약 분야를 꾸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황유경 (032-585-3141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현 (032-585-3250)
			주무관 안지선 (032-585-3136)

